

# 새로운 공간을 열다!

## 위드지스(WITHJIS) | 안전보건 지평을 넓히다

글·사진 안유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사진제공 위드지스



위드지스(WITHJIS)는 '새로운 공간을 열다'를 모토로 인테리어 도어와 시스템 파티션, 시스템 창호 제품을 주력 생산·시공하는 기업이다. 주요 소재는 알루미늄과 유리로 각 공간에 어울리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장이 거듭될수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안전보건 부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위드지스의 노력을 살펴본다.

- ❶ 위드지스 본사 전경
- ❷ 강남 전시장
- ❸ 부산 전시장
- ❹ 제주도 전시장

위드지스는 2014년 설립 이래 매년 큰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최근 국내 우수 기업을 비롯하여 글로벌 기업의 사옥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오피스 파티션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본사에는 5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강남·부산·대구·판교·광주·서울숲·제주 등 영업지점에서는 위드지스 솔루션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가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졌죠.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받은 사업장 진단은 안전보건 체계 초석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협회의 설명을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며, 현장 개선점을 찾는 데도 열중했습니다.”

이수나 대리는 관리부 소속으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도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다. 성장하는 기업의 안전보건담당자로서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는데, 그 중압감은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었다고 한다.

“사무실에 앉아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죠. 생산 공장과 물류센터에 방문해 현장 직원과 소통하며 개선할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 가면 다시 한번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느끼고, 안전보건 업무에 집중하는 힘을 얻곤 합니다.”

현장을 자주 찾다 보니, 안전보건 교육이나 캠페인에 현장 직원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은 당연지사. 이수나 대리는 위드지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늘도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



## “작은 노력들을 모아 탄탄한 안전보건 체계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 이수나 대리

### Q.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직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위험 작업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이 많지 않다 보니 일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희 사업장은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편인데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 Q. 안전보건관리 부문 포부와 다짐을 들려주세요.

A.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 탄탄한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서류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필수 구비 서류나 교육 등을 안내해 주셔서 무리 없이 꾸준히 체계를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